



친애하는 이웃들께:

5월은 아태계 문화유산의 달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올해는 이들의 유산과 문화, 업적을 자랑스럽게 기리는 대신, 많은 분들이 아태계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혐오 및 괴롭힘 사건들에 분노하고 있으며, 다른 분들은 자신의 안전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팬데믹부터 내려앉기 시작한 증오와 괴롭힘의 구름을 DC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건들의 그늘 속에 있으며, 여기에는 아시안 소유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특별구를 위해 아태계(AAPI) 커뮤니티들이 기여한 바를 잊지 맙시다. 이들은 다양한 언어와 종교, 음식과 음악으로 우리 환경을 풍요롭게 합니다. 아시안 업체들은 소중한 상품들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요한 세금 수입을 만듭니다. 또한 이들은 우리 흑인, 라틴 및 기타 이웃 커뮤니티들과 하나로 연대하며 평등과 번영을 추구하는 DC를 후원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공헌을 우리는 인정하고 치하해야 합니다.

만약 AAPI 커뮤니티 내 누군가가 혐오 또는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면, DC는 이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지역 리소스로는 시장실 소속 아시아 태평양 주민국(Mayor's Office on Asian and Pacific Islander Affairs), 법무 장관실, 인권 담당실(Office of Human Rights), 인권 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등이 있습니다.

DC 인권 위원회(DC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DC 인권법에 따라 차별 소송들을 심리하고 판결합니다. 이 법은 국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 중 하나로,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을 포함한 21개 특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저는 위원회장으로 봉직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AAPI 커뮤니티 주민들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과 방문객들에 대한 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노력하여 우리 특별구 내 혐오와 괴롭힘을 퇴치합시다. 그리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안전을 지키며 이 특별한 문화유산의 달을 기립시다.

진심을 담아,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be "W. Kim", written in a cursive style.

DC 인권위원회 회장 드림